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3. 09. 27.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다 같이

- 1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 2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 3 남의 집을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 4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 5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후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안에 즐겁고 복된길이로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요한복음 1장 43~51절

다 같이

-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 45 빌립이 나dana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 46 나dana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 47 예수께서 나dana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 48 나dana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 49 나dana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 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 나눔

참 크리스천

인도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빌립은 혼자 가지 않고 나dana엘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나dana엘을 본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가리켜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7 예수께서 나dana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칭찬입니까? 더욱이 이러한 칭찬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답지 못한 자들, 참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때, 참으로 의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dana엘을 통해서 이 시대의 참 크리스천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정과 개인에게 적용할 때 예수님께 칭찬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는 편견을 극복했습니다.

나dana엘이 예수께 칭찬받게 된 배경은 첫째로 그가 지역적 편견을 극복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함께 만날 것을 권유하며 전도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되물음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역적 편견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46 나dana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당시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고향에서 나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막 6:3) 그렇다면 다른 지방 사람들과 나름대로 대도시에서 배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나dana엘이 끝까지 빌립의 인도하는 전도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빌립의 “와 보라”는 말에 순순히 따라나섰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친구의 말을 무조건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자신이 확인해 본 후 결정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닫혀있던 사고와 생활 양식의 사람들 속에서 그는 열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도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인 이상 학벌, 재산, 지역 등에 대한 세상적 편견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그러한 편견과 독선과 아집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버립시다.

마음을 활짝 열어 놓읍시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진리를 받아들입시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가정과 개인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그는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나dana엘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간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간사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로 아주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서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위장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위선에 대한 유혹을 한 번쯤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dana엘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초연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며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47 ...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 태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dana엘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말했다면 사람들 앞에서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의 태도가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과 개인에게도 이러한 순수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식적인 행위와 탐욕, 그리고 허탄한 명예욕으로부터 초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그는 고요한 가운데 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dana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나dana엘은 단 한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자신 주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48 나dana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 나dana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보았다고 하신 말씀은 은밀한 부분을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고요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dana엘을 아셨던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한 걸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경건함을 잃지 않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장소요, 묵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았을 때 메시아인 것을 바로 알아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회당과 큰길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기도했던 바리새인들과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나dana엘의 모습 중에 어느 것이 진실하고 올바른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진실한 행동으로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고요한 가운데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은밀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봉사와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삶을 올려드리는 참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기도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삶을 올려드리는 참 크리스천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개인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수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눔

다 같이

1.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편견은 무엇이 있나요?
2. 나에게 무화과나무 아래는 어디이며, 최근 가장 묵상하며 기도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중보기도

다 같이

1. 큰빛은혜교회의 예비하신 건축(건물, 교회, 땅)이 속히 이루도록
2. 믿음 좋은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오도록
3. 산위에교회, 이스라엘 회복, 컴패션 아이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4. 홈리스, 버스킹, 어라이즈 워십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도록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